

코로나19가 중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대응

천윈(陳雲)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 취업창업연구실 부주임)

■ 머리말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인 공공보건 위기를 초래한 사건으로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5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10만 명을 넘었다. 마이클 라이언(Michael Ryan) WHO 긴급준비대응팀장은 전 세계 10%가 넘는 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¹⁾ 영향력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19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지역사회 및 국가, 권역,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력 범위를 보면 인간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나아가 정치 및 문화심리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자체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길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었는데, 그 영향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의 직접적인 충격뿐 아니라 그 후속효과와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는

* 이 글은 2020년 12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KLI),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및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의 공동주최로 온라인 개최된 「제18차 동북아 노동포럼」에서 발표된 필자의 발표문이다.

1) WHO 홈페이지 참조(<https://www.who.int>).

사회경제 전반의 정상적인 운영질서에 큰 충격을 주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고 깊다. ILO에서 2020년 4월에 발표한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최신 평가와 분석(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Impact and policy responses)」은 현재 세계 81%(약 33억 명)의 노동력이 강제적 또는 권고형 업무장소 폐쇄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업자 증가 규모는 2,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및 통제 현황이 서로 다르고 사회경제적 여건도 상이하여 서로 다른 대응 조치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각 국가 및 지역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실정에 입각해 코로나19 발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건, 코로나19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및 발현 형태, 그리고 정책대응 및 효과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메커니즘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사회경제적 배경

코로나19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 중 전파속도가 가장 빠르고 감염 범위가 가장 넓으며 방역난이도가 가장 높은 중대한 돌발적 공중보건 사건이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은 매우 특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확산 초기 중국은 마침 춘절 전후 시기여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최고조였으며, 기업은 신년 생산활동을 재개하고 노동자는 명절 연휴 이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시기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 현재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성장속도를 하향하면서 경제동력이 전환되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심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전체 산업의 절반을 넘었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율이 계속 상승하여 2019년에는 57.8%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가 날로 긴밀해지면서 연간 상품 수출입 총액이 31조 위안(한화 약 5,252조 원)을 넘어섰고, 서비스 수출입 총액도 5조 위안(약 847조 원)을 넘었다. 경제

분업 시스템이 한층 더 세분화되면서 산업사슬이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부 중요 원자재와 부품 및 기술인력은 여전히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을 도농 간 인구이동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으며 이동속도가 빨라, 춘절기간 동안 승객 유동량은 4억 명을 돌파했으며, 연간 수송 총량은 170억 명에 달한다.²⁾ 또한 노동시장의 총량 압력이 여전히 동시에 구조적 모순이 심각하다. 전국의 노동력 자원은 9억 명 가까이 되며 도농 취업자 수는 약 7억 7,600만 명이다. 최근 도시에서 구직하려는 신규 노동력은 1,500만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대학교 졸업생은 거의 900만 명에 달한다. 이와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자 세대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의 구직과 생활 관념 및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시화되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은 코로나19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층구조 및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영향의 범위, 대상, 수준 및 작용기제 등 거의 모든 측면을 결정했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

코로나19 고유의 특징과 방역조치 및 당면한 사회경제 발전단계의 특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다른 사회경제적 사건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먼저 방역조치로 인해 인적 및 물적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 기업의 경영과 생산이 영향받고 나아가 기업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업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후 기업의 생산경영과 물류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기업의 고용과 인적 이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위기 메커니즘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즉 금융위기의 핵심이 ‘돈’ 문제에서 출발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코로나19는 우선 ‘사람’ 문제에서 출발해 결국 ‘돈’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의 기습에 노동시장의 정상적 질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방역조치로 인적 이동이 제약되고 물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과 일자리의 분리, 생산요소의 분열 및 공급과 수요의 단절을 초래해 기업이 제때 생산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도 도시의 일자리로 복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시장의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않

2) 본 데이터의 출처는 주로 중국의 각종 통계공보 자료를 참조했다.

고 총량이 부족하며 여기에 구조적인 미스매치까지 겹치면서 구인난과 구직난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심각해졌다. 감염의 확산 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회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만연해지자, 일부 기업은 경영난에 빠지고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임금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되었다. 나아가 이는 사회심리와 행동습관 등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지며 불가피하게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주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화 과정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충격을 주었고, 더욱이 각종 정치·경제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갈등이 촉발되고 더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력 또한 더욱 증폭되었다. 그 결과 일자리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메커니즘은 더욱 복잡해져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고용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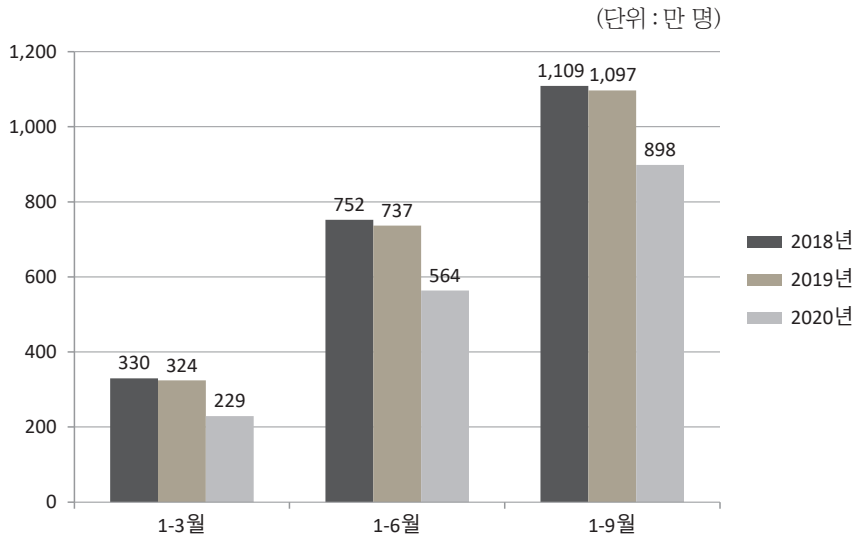
전반적인 안정, 점진적인 회복 및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의 고용상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동시장 주요 지표 데이터의 변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지표 데이터와 일치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난 이후, 중국 경제사회 질서의 신속한 회복에 따라 경제성장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이 한때 -6.8%까지 곤두박질쳤지만,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어 3.2%의 성장을 실현했으며, 3분기에는 전년 대비 4.9%의 성장을 이루었다.³⁾ 또한 소비, 투자, 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고용을 안정시키고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노동시장도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주요 지표 역시 호전되어 '전반적인 안정, 점진적인 회복,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의 고용 국면을 보이고 있다.

고용 성장세를 보면, 2020년 1분기 도시신규고용이 229만 명으로 동기 대비 29.3%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2020년 상반기 도시신규고용은

3) GDP 성장 데이터 출처는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참조(<http://www.stats.gov.cn>).

[그림 1] 2018~2020년 도시 신규 고용 규모



자료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http://www.mohrss.gov.cn>)
분기별 뉴스브리핑, 증감률은 각 분기별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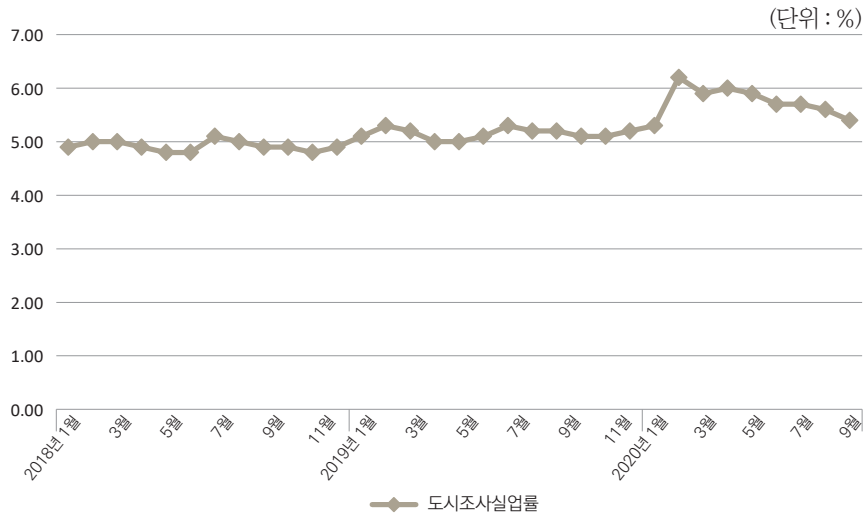
564만 명으로 동기대비 23.5%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국민경제는 지속적·안정적으로 회복되었으며, 특히 사회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서비스업계가 점차 영업을 재개하자 2020년 1~9월 도시 신규 고용은 898만 명으로 동기대비 18.1% 줄어 감소폭이 더욱 좁혀졌다.⁴⁾

실업 수준을 보면, 2020년 2월 전국 도시조사실업률이 6.2%라는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 단계적으로 점차 하락하여 3~5월에는 5.9~6.0%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6~8월에 5.7~5.6%까지 하락했고, 9월에는 동기대비 불과 0.2%p 높은 5.4%까지 떨어졌다(그림 2 참조).

인력자원시장기관의 인터넷 채용 데이터를 통해 시장수요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수요가 급감해 2020년 1분기 채용수요가 동기대비 25.9% 줄었고, 2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면서 3분기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해 동기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얼어붙었던 시장수요가 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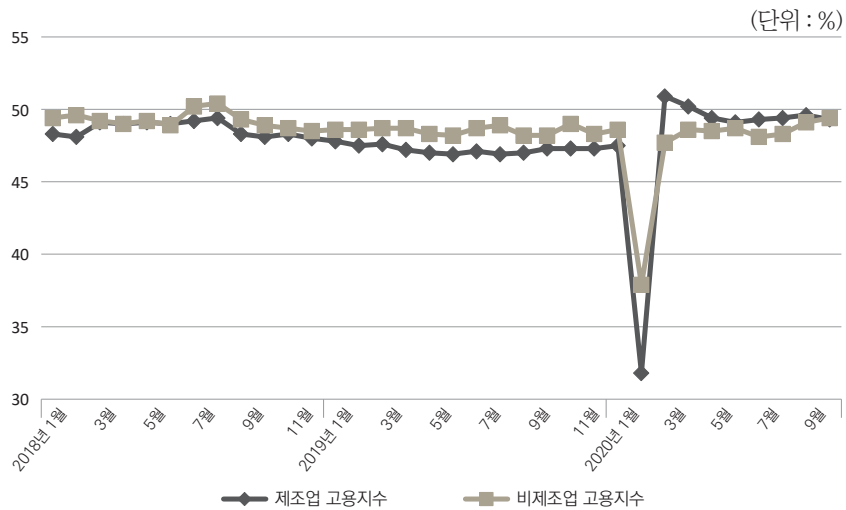
4) 도시 신규 고용 데이터 출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http://www.mohrss.gov.cn>)로, 증감률은 각 분기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함.

[그림 2] 2018-2020년 전국 도시조사실업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www.stats.gov.cn/>), 월간 국민경제 운영 현황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함.

[그림 3] 2018~2020년 제조업과 비제조업 고용지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www.stats.gov.cn/>), 월간 중국 PMI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리함.

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2020년 2월 제조업 고용지수와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해 각각 35.6%와 37.9%라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기업 고용이 회복되면서 두 지수 모두 빠르게 반등해 10월 제조업 고용지수와 비제조업 고용지수는 각각 49.3%와 49.4%를 기록했다.⁵⁾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위주의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일반적으로 동기간 제조업 고용지수보다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줄곧 제조업 고용지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부 서비스업 기업이 직원이 긴밀하게 접촉하는 노동집약형 업종에 속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고 그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에 이르러 다시 제조업 고용지수를 앞서고 있다. 이는 비제조업 기업의 고용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 참조).

고용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의 단계적 추세와 특징

사회경제와 고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코로나19 지속시간과 확산세 및 방역강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코로나19의 지속시간이 기업과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조치도 상응하여 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멈추고 노동시장이 얼어붙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초기이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잇달아 1단계 통제조치를 가동하며 여러 역량을 통합해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데 집중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억제가 가장 긴급한 과제였다. 방역을 위한 응급물품 생산, 기본적인 공공생활 보장, 국가적 프로젝트 등을 제외한 기타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업종의 전체 산업사슬이 생산경영과 고용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다. 경제 성장률은 크게 곤두박질치고 휴일경제⁶⁾ 관련 업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노동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단절되었다.

5) 제조업과 비제조업 고용지수 데이터 출처는 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www.stats.gov.cn/>)로, 매달 발표된 데이터에 근거해 필자가 계산 및 정리함.

6) 편집자 주: 휴일경제(休日經濟, holiday economy)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휴일을 늘리면서 등장한 신조어로, 휴일 동안 일어나는 여행, 쇼핑 등의 소비 행위가 공급·시장·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경제모델이다.

일자리 공급이 억제되어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가 대거 휴직 또는 실직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었고, 일자리 수요도 얼어붙어 대다수 기업이 정상적으로 고용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대부분 춘절 연휴기간과 겹쳐 있어 초기 영향은 주로 휴일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즉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휴일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영향을 받아 거시시장 지표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으며, 향후 생산재개 및 고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와 구직이나 업무 복귀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를 촉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이 제한적으로 회복되는 코로나19 안정기이다. 방역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고, 코로나19 방역과 사회경제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주도하에 지역별·단계별 방역을 실시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경제활동을 질서 있게 복구했으며 기업도 점차 업무 복귀와 생산을 재가동했다. 설 연휴 이후 업무 재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전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전제하에 일부 지역과 기업에서 질서 있게 생산을 재개하고 일부 노동자가 도시의 일자리로 복귀했다. 하지만 기업의 업무 재개와 노동자의 지역이동은 여전히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으며, 노동시장의 회복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수급 총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일자리 수급 양측의 모순이 상호 얽히면서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부각되는 ‘마찰적 실업’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드는 전환기로, 노동시장 회복이 가속화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방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회복되었다. 소수의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기업이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을 영위하면서 생산 재가동률과 업무 복귀율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고용수요와 노동시장의 공급이 풀리자 노동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면서 농민공의 구직과 대졸자 공채가 집중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으로 일자리 수급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별로 업무 재가동에 시간차가 존재하고 각 지역의 생산 및 업무 재가동진도 역시 일치하지 않아, 노동력 공급이 일정 정도 새롭게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본래 다른 업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새로운 업종에 취직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해 취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업무 복귀가 늦게 재가동된 지역과 기업에서는 더욱 극심한 구인난이 초래되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심각하거나 비교적 위험이 큰 지역

및 업종의 기업은 제때 재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장기간의 조업 중단으로 인해 휴직하는 등, 업종에 따라 국지적인 실업 위험에 놓여 있었다.

네 번째 단계는 코로나19 방역이 일상화되는 단계로, 노동시장은 회복기에 접어든다. 코로나19 상황은 안으로는 재확산을 방지하고 밖으로는 역유입을 방지하는 일상적 방역단계에 진입한다. 이 단계의 경제활동 특징은 국내 경제상황의 점진적인 회복과 국제시장의 수요 하락 및 국제무역의 심각한 장애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이 지속되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선진국이 취한 격리·봉쇄조치가 대외무역 및 관련 업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즉 명절 이후 일찍 조업을 재개한 일부 기업이 갑작스러운 출하 중단을 겪었고, 주문이 급감하여 생산비용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수한 사례의 감원과 구조조정 현상이 발생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하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이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궤도에 접어들었고 시장이 새로운 조정기에 진입했다. 즉 일부 업종은 어느 정도 보상적인 성격의 성장세를 누렸고 일부 신생업종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획득하는 한편, 일부 업종과 기업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시장에서 도태되었다. 따라서 시장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감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노동자가 실업 및 새로운 직업 선택 문제에 직면하면서 노동시장이 다시 파동을 겪게 되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 조치 역시 점차 그 후속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변화와 이로 인해 심화된 경제구조 조정 및 충격이,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기업의 생산경영과 고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욱 심층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기술혁신과 사회심리·문화적 요인의 고용에 대한 영향도 점차 나타날 것이다.

모든 지역과 업종 및 인력의 고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최근 국내적으로 경제성장 하락 압력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 등 외부 간섭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래 안정세를 보였던 고용상황에 코로나19 충격과 복합적인 영향이 더해져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사회경제 발전의 토

대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는 경제와 고용에 심각한 충격을 주면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모든 지역과 업종 및 구성원의 고용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 보면 코로나19는 중국 전역의 모든 성(省)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도 있고 낙후한 지역도 있으며 코로나19는 노동력 유입 지역뿐만 아니라 노동력 유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부 노동력 유입이 큰 지역은 코로나19의 집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으로 대상을 보면 코로나19는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우선 명절휴가 이후 업무에 복귀한 각종 기업 및 단위 소속 직원과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방대한 규모의 농민공 및 외지근무 노동자가 영향을 받았고, 일부 도시에 남은 농민공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이어서 2020년 봄철 대졸공채가 코로나19 한파로 얼어붙으면서 취업스트레스가 급증했다. 또한 농촌 빈곤층 노동력의 직업 이전과 도시 취약계층의 재취업도 더욱 힘들어졌다. 비록 방역일선의 의료진과 다양한 조직의 복지 인력 및 기증 업무 인력 등의 업무 복귀가 있었지만, 이들 역시 고강도의 연속근무 상황에 처했다.

시간상으로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가 길고 재감염 위험이 높아 사회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했다. 두 번의 격리 주기에만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과 노동자의 취업에 시간적인 영향이 컸다. 특히 글로벌 팬데믹 위험 속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방역 통제시간이 더욱 길어져 고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시간적으로 크게 연장되었다. 한편,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회복을 더욱 지체시키고 있다. 고용은 아마도 불규칙한 W자형의 파동을 그리며 등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구조적·마찰적·주기적 실업문제가 교차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힘겨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의 구조적 차이

업종별로 볼 때, 각 업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역조치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즉 기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와 경영생산 여건도 각기 다르고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조업 재개 진도도 일치하지 않으며, 고용수요 개선 상황에도 비교적 큰 시간차가 있고 직면한 위험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점들이 취업의 구조적 모순을 비정상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업종별 및 지역별 실

업 위험의 촉발 지점이 크게 늘고 고용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요식업, 관광산업, 영상산업 등 일부 소비 업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춘절기간 휴일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1년 매출을 1월에 집중적으로 올려 1월의 실적으로 1년을 견디는' 일부 업종에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오프라인 영상 엔터테인먼트, 관광, 상업비즈니스, 홈서비스 등 즉시적 소비 업종의 경영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농촌 일부 가정은 양식업과 계절 농산물 판매에서 충격을 입었고 춘계 경작 및 파종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다. 교육, 건축업, 부동산업,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문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에서 재가동 시기가 뚜렷하게 지체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받은 충격이 더욱 컸고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처하는 능력도 취약하여 시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짧다. 만약 적시에 압박을 낮추고 손실을 줄이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길어질수록 이들 기업과 점포에서 폐업과 실업이 대거 발생할 위험이 크다.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의 2020년 2월 말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정상경영 상태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에 업종별로 뚜렷한 시차가 존재한다. 농림축적업, 건축업, 제조업, 보건 및 사회사업,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숙박·요식업, 부동산업 등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용상황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농민공의 업무 복귀율이 비교적 낮고 농촌 체류인력이 많아 현지 취업 스트레스가 커졌다. 반면, 광둥(廣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지는 공장 재가동률이 높은 편이지만 대외무역 의존도 역시 높아 해외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부 대외무역 기업이 초기에 서둘러 공장을 재가동했지만 코로나19 해외 확산의 영향으로 주문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거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등 2차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고용 안정에 대한 압박이 전반적으로 커졌다.

집단별로 보면, 코로나19는 절대다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농민공의 도시 및 일자리 복귀가 지체되면서 귀향 농민공의 외지 취업비율이 예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일부 농민공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 도시로 돌아왔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민공의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다소 상승했다. 동시에 대졸자의 취업 스트레스가 이들의 공급증가와 수요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커졌다. 코로나19는

2020년 대졸공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졸업생의 구직시기가 늦춰지면서 대학생 실업률이 1분기 말과 7~8월 여름학기 졸업시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등록실업자,⁷⁾ 빈곤 노동자, 코로나19 감염자 및 후베이(湖北) 등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역의 노동자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실업 위험도 다소 누적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업, 특히 가사서비스와 기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여성 취업비율이 비교적 높아,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보통신망에 기반한 신(新)경제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완충 역할을 발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 도소매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가 새로운 소매 업종으로 대거 옮겨갔고, 전통 물류가 중단되면서 일부 택배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일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게임, 온라인 오피스 업무 등의 정보소비가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했고 이와 관련된 전자정보, 인터넷 서비스 등과 재택경제⁸⁾ 관련 업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다. 한편 코로나19는 공중보건·방역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기타 민생 분야 및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 지점을 드러냈다. 이는 향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건설적 요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코로나19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촉발하고 기업 관리와 모델에 질적 제고와 혁신을 가속화하며, 기업 생산경영에 새로운 기회와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장차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간을 만들어 낼 것이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정책과 제안

코로나19 발생 즉시 중국 정부는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과 사회경제 발전을 함께 고려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그 충격을 해소해 나갔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고도로 중시

7) 편집자 주: 등록실업률은 중국 취업지원센터에 실업으로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중 비(非)농업 호적이며 16세 이상부터 퇴직연령 이하일 때 등록이 가능하다.

8) 편집자 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온라인 쇼핑 등의 전통적인 온라인 산업과,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재택근무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온라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재택경제(宅经济)라고 한다.

하여 ‘6대 안정(六穩)’ 업무 강도의 강화를 제기하는 동시에 ‘6대 보장(六保)’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했다.⁹⁾ 이 가운데 ‘주민 일자리 보장’을 그 으뜸에 두어 ‘일자리 우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공감대를 모아냈다. 특히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대신 일자리에 관한 업무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사회경제 실태에 근거하여 실사구시적으로 일자리 목표를 조정했다. 즉 도시신규고용을 2019년 1,1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조정하고 조사실업률¹⁰⁾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으며, 등록실업률¹¹⁾을 4.5%에서 5.5%로 상향했다.¹²⁾ 정책목표 확립과 조정으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는 데 일조했으며 사회적 기대를 유도하고 안정화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 및 조치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일자리 우선 정책을 잘 실시하고 전반적인 고용안정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조화로운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부담 경감 및 지원, 일자리 안정, 고용 확대를 병행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고 핵심 집단의 고용 보존, 일자리 기반 안정화 및 고용상황의 전반적인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거시정책 측면을 보면, 주로 코로나19 단계별 및 지역별로 각 업종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조업 재개를 추진하였다. 보다 적극적이고 힘 있는 확대 재정정책을 취하고 재정·통화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며 감세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보다 탄력적이면서 적절한 수준의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금융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하며 융자 비용을 줄여 대출상환 압력을 경감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실물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했다. 중점 프로젝트의

9) 편집자 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실무적인 조치로, ‘6대 안정’은 취업·금융·무역·외자유치·투자·경기예측, ‘6대 보장’은 취업·민생·시장주체·식량과 에너지 안보·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정·기층 운영 보장을 말한다.

10) 편집자 주: 조사실업률은 도시 전체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 조사한 실업률이다.

11) 각주 7 참조.

12) http://www.gov.cn/premier/2020-05/29/content_5516072.htm

추진과 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내수를 적극 확대하며 주민 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시켰다. 또한 대외무역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와 무역을 안정시켜 수출을 장려했다.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 측면에서, ‘유예·감면·면제·환급·보조(緩減免返補)’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지원했다. ‘유예(緩)’는 양로·실업·산재·의료보험료와 주택 공적금¹³⁾의 납부유예 조치를 의미하고, ‘감면(減)’이란 양로·실업·산재·의료보험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가리킨다. ‘면제(免)’란 양로·실업·산재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며, ‘환급(返)’이란 실업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이다. ‘보조(補)’는 직업훈련 보조금, 창업 보조금, 취업 보조금 등을 통해 노동자가 기능을 향상하거나 스스로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직업 훈련 업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3대 사회보험료¹⁴⁾가 총 9,107억 위안(약 154조 원) 감면되었고 납부유예 액수는 616억 위안(약 10조 원)이었으며, 요율 하향조정으로 2,322억 위안(약 19조 원)을 덜 걷었다. 또한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한 경우에 반환된 실업보험금은 850억 위안(약 14조 원)이며 취업 보조금으로 638억 위안(약 11조 원)이 지출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받은 직접적인 혜택이 총 1조 3천억 위안(약 220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 고용과 일자리를 안정시켰다.¹⁵⁾

또한 정부는 농민공과 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정책 조치를 마련해 실시했다. 농민공의 취업·창업지원 전문 정책 조치를 실시하여 특히 빈곤 노동력의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 실현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기업 고용, 기층취업(基層就業),¹⁶⁾ 대학원 정원 및 학생 입대, 인턴 규모 등을 확대하여 대졸자의 취업을 다양화하고 고용인이 채용을 적절히 연장하거나 연기하도록 유도하며, 일부 직업에서는 ‘선(先)임용, 후(後) 자격증 취득’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즉시 충분히 수령하도록 보장하고 취업 약자와 코로나19 위기가 심

13) 편집자 주: 주택 공적금은 사용자와 직원이 1:1 비율로 납입 및 적립하여 직원이 주택을 구입·건축·개축·수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공적금이다.

14) 편집자 주: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이 중국 3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15)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fbh/202010/t20201028_393432.html).

16) 역자 주: ‘기층’이란 농촌 및 도시의 지역사회 행정단위까지 가리킨다. 즉 기층취업은 현(縣)급 이하 당정기관, 공사기업, 사회단체, 비공유제조직,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체 취업도 포함하며 고되고 힘든 일자리도 포함한다.

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임시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했다. 취업 약자 인정기준을 동태적으로 조정하여 실업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보조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온라인 실업보험급여 신청 플랫폼을 만들어 최저생활보장제도, 사회부조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업자의 기본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취업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하통합 및 점(點)과 면(面)의 결합 방식으로 서비스를 혁신하여 시장 활력을 회복시키면서 취업을 촉진했다. 코로나19 방역 환경에 알맞게 업무방식을 혁신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매칭하였다. 코로나19 초기, ‘중점기업 인력배정 보장기제’¹⁷⁾를 구축하고, 농민공에 대한 점대점(点对点)¹⁸⁾ 서비스를 조직했다. 또한 농민공의 외지로의 인력 이동 그린채널을 열어, 오프라인에서도 서비스 활동을 질서 있게 회복시키면서 농민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업무 복귀를 촉진했다. 그리고 온라인 고용 매칭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 재가동을 분야별로 정교하게 추진했다. 또한 온라인 취업 서비스를 조직 및 전개하고 대규모 온라인 채용을 전개하여 온라인 ‘춘풍행동(春風行動)’¹⁹⁾을 실시하고 ‘백일천만 온라인 채용(百日千萬網絡招聘)’²⁰⁾을 시작했으며, ‘취업창업 서비스 공략 분기행동(就業創業服務攻堅季行動)’²¹⁾을 통해 시장의 수급 매칭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실업 등록, 온라인 실업보험 신청 및 수령, 온라인 취업보조금 신청 및 처리 플랫폼을 전면 개통하여 최적화했다. 직업기능 훈련의 수준을 강화하고 직업기능 제고를 위한 행동도 적극

17) 역자 주: ‘중점기업’이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생산 업체, 관련 원자재 생산 업체, 주요 설비 제조업체, 주요 생필품 생산 업체, 의료물품 물류 업체, 방역 정보통신설비 및 서비스 시스템 제공 업체 및 이상의 물품에 대한 주요 운송판매업체 등을 가리킨다.

18) 편집자 주: 점대점(点对点)이란 농민공의 신속한 일자리 복귀를 위해 각 지역이 협력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각 지역(점과 점)을 연결하여 전용 버스 혹은 전용 열차로 농민공을 각지의 일자리에 배치하는 서비스이다.

19) 역자 주: 춘풍행동은 농민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노동중개기관을 정돈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농민공을 위한 ‘봄바람’이라는 뜻의 캠페인이다.

20) 역자 주: ‘백일천만 온라인 채용’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채용으로 ‘백일 동안 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21) 역자 주: 3개월 동안 실업 등록과 구직 및 창업 서비스 채널을 넓히고 공공취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 및 차별화하는 등 정교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촉진한다는 캠페인으로, 2020년 4분기에 중국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인터넷 플러스 직업기능 훈련계획’²²⁾의 일환으로 100일 무료 온라인 직업기능 훈련 활동을 전개해 노동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했다.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생산과 생활질서가 빠르게 복구되고 있으며, 얼어붙었던 노동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취업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아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방역 일상화를 통해 재확산과 지역적 폭발을 방지하는 것이 여전히 막중한 과제이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회복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생활서비스업의 회복도 비교적 더딘 상황이다. 또한 업종별로 회복과 성장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식·숙박, 관광, 가사서비스, 문화·스포츠, 전시 컨벤션, 항공운송 등 업종의 회복이 여전히 어렵고 기업 활력도에 차이가 뚜렷하다. 중소기업의 설비가동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일부 장기 적자 기업은 감원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팬데믹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국 경제와 고용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2차 피해가 세계경제에 여러 차례 충격을 주면서 산업사슬, 자금사슬, 무역·물류 및 인적 이동이 모두 영향받고 있다. 세계경제는 아마도 심각하게 쇠퇴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 및 일자리 영역의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징후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중국 국내경제의 회복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외부환경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지면서 중국의 고용상황에 ‘회조효과(回潮效應)’²³⁾를 형성하고 있다. 즉 고용에 대한 영향이 코로나19라는 단일 요인에서 다중적 요인의 중첩으로 바뀌고 영향의 효과도 단기화에서 장기화로 바뀌면서, 구조적·마찰적·주기적 및 정책적 문제가 상호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22) 역자 주: 2019년 5월 중국 국무원에서 ‘직업기능 제고 행동방안(2019~2021년)’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직업훈련 계획이 차질을 빚자, 2020년 2월 ‘인터넷 플러스 직업기능 훈련계획’으로 바꾸어 재정비되었다.

23) 역자 주: ‘회조(回潮)’는 이미 햇빛에 말리거나 구워서 건조해진 것이 다시 습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사라진 옛 습관이나 사상 등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경영개혁이 이루어진 후 여러 원인으로 인해 과거의 오류로 다시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단계 취업에서 두드러진 문제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과제에 대해, 더욱 통합적인 고려, 장단기 결합, 시기에 따른 시책, 핵심 부각이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고용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실천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고용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책 조율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정·통화·산업·투자 등의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조화롭게 연동시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의 단계적 특징에 근거하여 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자리 안정과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투자와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중점 프로젝트와 중대 산업의 고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규모가 큰 산업 업종의 우선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통해 신(新)산업과 신(新)업태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로의 유연고용을 장려해야 한다. 한층 단계적이고 차별화된 감세·감면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여 기업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내수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실시하여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능력을 제고하며 시장수요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기업 생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국내외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순환을 통해 시장주체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핵심 업종과 집단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크고 장기적인 요식, 엔터테인먼트, 교통, 관광, 무역, 오프라인 생활서비스 등의 업종, 특히 대처능력이 약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대졸자의 취업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다양한 시장주체의 졸업생 채용 확대를 장려하고 인재예비계획²⁴⁾을 세우는 등 시장의 채용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24) 인재예비계획이란 기업이 스스로의 성장전략 목표와 미래의 생산경영 계획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목표가 분명한 인력풀 및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자원 계획을 통해, 기업의 인력이 기업의 미래 성장목표의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보장하는 인적자원 전략이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미래의 생산경영 상황을 예측하여 미래 인재를 사전에 채용, 예비 및 양성하여 고용규모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이때 대졸자, 취업취약자, 실업자 및 빈곤노동력 등을 채용하여 정해진 조건에 맞는 경우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이 졸업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재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졸업생의 기층취업 및 창업 장려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기층 단위의 인력활용 시스템의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기층취업 공간을 확장한다. 대졸자의 취업·창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속 과정을 최적화한다. 전국적인 온라인 수급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 매칭 효율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야 한다. 졸업생 대상의 취업 심리상담을 통해 이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전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전략에 주력해 생산요소와 프로젝트의 농촌 공급을 촉진하고 귀농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농촌 인프라 시설 건설과 주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촌 노동력의 근거리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민공의 체계적인 외지 취업 유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질서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고용주체가 시장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도록 촉진한다. 공공취업 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해 농민공 대상의 취업 서비스와 지원 및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 실업자, 취업약자 인력, 소득원이 전무한 가정 등의 신속한 취업 실현을 지원한다. ‘위임·혁신·서비스(放管服)’ 개혁²⁵⁾을 심화하고 지속적으로 ‘대중창업 만중창신(雙創)²⁶⁾’을 추진하여 창업을 장려한다. 특히 도농 지역사회와 도시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통해 취업하도록 지원하며, ‘소점포 경제’와 ‘야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부 일용직 시장과 창업시장을 설립하도록 개방하여 유연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생계보장 수준과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보호를 강화하며 도시의 고용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여 공공취업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각 성(省)급 지역에 고용상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화하여 취업 및 실업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예측경보, 단계별 대응, 상하 연동하는 실업위험 예방 및 응급대처 기제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위험 예방·통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책적 준비를 강화한다. 공공취업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며 온라인 실시간 채용, 특별채용, 인력자원 서비스업계의 취업촉진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수급 매칭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KLI**

25) 역자 주 : 권한을 위임하여 진입 문턱을 낮추고, 관리감독을 혁신해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서비스로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6) 편집자 주 :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하자(大衆創業, 萬衆創新)’의 약칭을 ‘쌍창(雙創)’이라고 한다.